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4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p>사제들을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4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0/11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0/18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0/25	유 요한	이 바오로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9/27	\$ 250.00	-	-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이 쾌유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제 2 회 베이커스필드 한인 축제: 10/11(일) 정오-오후 5 시

장소: Jastro Park (2900 Truxton, Ave.)

내용: 한국문화공연, 태권도 시범, 사생대회, 전통의상, 음식소개 등

***한인 축제 전야제: 10/10(토) 오후 6-9 시**

장소: 세븐 옥스 컨트리 클럽 (2000 Grand Lakes Ave.).

내용: 만찬 & 한마음 음악회. 티켓: \$50

문의 및 신청: 박 은자 (661-496-1535), 9 월 28 일까지

공동체 임원회의: 10/13 (화) 저녁 8 시

10 월 한인공동체 임원회의는 둘째 화요일인 10 월 13 일(화) 저녁 8 시에 있습니다.

소공동체 구역모임: 10/18 (주일) 주일미사 후

10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10 월 18 일 주일미사 후 천교실에서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종료

9 월 6 일 미사후 28 번째 교리공부를 끝으로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기도로써 함께 하여주시신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리반을 마치신, 이 영자 자매님의 세례식은 10 월 10 일(토) 오전 9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하느님의 신비와 함께하는 취미

정지옥 이나시오 로올라 영화평론가

몇 해 전부터 가을이면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와 스크린을 신비롭게 수놓고 있습니다. '그레비티'와 '인터스텔라'가 그랬고, 올해는 화성탐사 이야 기를 담은 '마션'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영화평론을 하는 제겐 어린 시절부터 사십여 년 동안 즐겨온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하늘을 관측하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북한산자락 정릉골 청수장 계곡의 집 옥상에 자그마한 천체망원경을 두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밤하늘을 관측합니다. 이따금 동네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달이나 토성, 목성 등의 태양계 가족들을 보여주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한번은 한 어린이에게서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는 누가 어떻게 만든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은 과학으로 다 설명하지 못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성장하며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 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우주와 천문학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저를 이끌어 준 분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가톨릭학생회를 이끌었던 요왕 (사도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어린 제게 우주와 하느 님의 신비를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로 친 구들과 자주 밤하늘을 찾아 떠나곤 했는데, 매번 밤을 꼬 박 새우고 돌아오는 탓에 어른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지만 작은 사고 한번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홀로 천체관측 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관측의 지표가 된 책이 '오리온자리에서 왼쪽으로 (Turn Left At Orion)'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천문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예수회 수사, 가이콘솔매그노입니다. 가이 수사는 미국 애리조나의 그레이엄 산에 있는 바티칸 천문대 (교황청 천문관측소) 에서 윤석과 소행성의 관계, 태양계 천체들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 수사처럼 저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작 은 천체망원경으로 우리 곁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세상을 경험하곤 하지요.

어린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천체관측을 할 수 있도록 제게 큰 영향을 준 두 분 덕분에, 저는 우주의 신비 를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은총을 받 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나누기 위해 가끔 사람들에게 밤하늘의 신비를 보여주곤 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지난 9 월 초, 한국가톨릭어린이 영화제 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밤 하늘의 신비를 나누다가,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여는 관 측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단 천체관측이 아니더라도 하느님의 섭리와 함께하는 취미를 가져 보는 것 은 어떨까요. 물론 그것이 '천체관측' 이라면 제 동료 들과 함 께 하느님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비를 나눌 수 있겠 지만 말입니다.

<서울주보에서>